

전문가 칼럼

문화와 윤리경영



송 창석
송실대 경영학부 교수

2010년 도요타 리콜사태로 도요타는 “비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어느 기업이나 리콜을 하는데 왜 유독 도요타만 비윤리적 기업으로 비난받았을까? 이는 리콜에 대응하는 방식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2010년 2월 5일자)은 일본기업이 부끄러움을 감추는 문화가 있고,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고객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합의를 중요시하는 나머지 누가 설계하고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애매하다고 지적하였다. 대다수의 일본 기업은 치밀하고 성실하다고 평가 되지만, 이러한 일본의 기업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어두운 면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자는 자국 문화의 어두운 면이 조직에 만연하여 임직원들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를 이해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인류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은 고배경 문화(나는 지시한 적이 없는데 아랫 것들이...!, 분위기를 읽는 자기검열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우리 사람인데 그 정도는 문제 되겠어! 배신자를 찾아라!), 권위주의 문화(VIP가 결정한 거야! 위에서 하라는데 무슨 잔소리야?!), 여성성을 가장한 남성적 문화(경쟁에서 이겨라! 하지만 다투지 마라!),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한 문화(유통기한이 언제야? 그 제품 만든 회사 믿을 수 있는 거야?)에 속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한국의 개인, 기업, 사회가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때 윤리적 고민에 빠진다. 이때 가장 편리한 기준이 집단에 이로운 것(집단주의), 오너에게 유리한 대안(권위주의)을 택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는 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길 꺼린다. 명확한 윤리적 공감대가 없는 한 당사자는 알아서(고배경 문화), 확실하고 탈이 없는 것(불확실성 회피성향+집단주의+권위주의)을 고른다. 기업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지적해야 하지만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배척되며(여성성을 가장한 남성적 문화), 비리가 공개되면 그 사람은 집단의 배신자,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이와 같이 한국 문화의 어두운 면으로 인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은 국내 기업생태계와 국제 경쟁력에 치명적이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 어느 국내 기업이 소비자를 속인 것이 들통 났다고 하자.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 되면 그 기업뿐 아니라 동종업계의 모든 기업들까지 비난을 받으며 결국에는 이른바 반기업 정서가 깊어진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하려 하고 중소기업 제품보다 대기업 제품을, 국산품보다 수입품을 더 찾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외국관리들은 한국 제품을 저평가해 유독 한국 기업에만 뇌물을 요구할 것이며, 오늘날 중국과 동남아에서 불고 있는 안전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열기는 일시에 사그라질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소수에 불과하니 자연스레 경쟁이 없어지면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요컨대,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 사회 전체의 도덕불감증은 물가상승을 통해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물가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거래 질서에서 신뢰를 회복하여 소비자가 어느 제품이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뢰항등식이라는 것이 있다. 한 개인이 갖는 믿음의 총 크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믿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느낀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10년 사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38배 증가

지난 7월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현황'을 보면 200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3곳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14곳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절대다수가 대기업이었으며,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중소·중견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하고 이를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위반 처벌강화

오는 11월부터 기업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발각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조항은 정보유출 사고 자체에 대해 규제 당국이 기업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는 의지로 향후 기업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에도 막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논의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공식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1000곳을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가칭 '사회적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분산된 지원 및 관리체계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포괄되어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윤리경영 동향

120개 NPO, 제지업계 지속가능성 비전 제시

120여 개 비영리기구(NPO)들의 네트워크가 최근 새로운 '글로벌 페이퍼 비전'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전세계의 종이소비 패턴과 생물다양성, 숲 생태계, 지구 온난화, 공기와 물의 질, 지역공동체 등에 대한 제지산업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전을 우선시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글로벌 페이퍼 비전은 전세계에 걸쳐 소비 감축, 재활용 콘텐츠 극대화,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 책임 있는 원료 사용, 온실가스배출 감축, 청정생산 강화, 투명성 강화 등 7가지 목표를 조율하는 여러 지역의 비전선언을 집약한 것이다.

산업별 협회들이 앞장서는 중국의 CSR

최근 중국은 산업별 협회들이 개발한 CSR 표준을 놓고 국제기구 및 국제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방직공업협회는 2008년 '중국 방직공업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100여 개 기업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현재 약 200개 기업이 발간을 준비 중이다. 전자협회도 지난해 <중국전자정보산업 사회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며 CSR 표준 사업에 동참했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CSR이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안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노동, 환경 등 고질적인 중국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랑스의 노력

프랑스가 최근 사회적 경제 입법을 마무리했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부터 시민들의 참여로 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7월 말 입법이 완료되었다.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수익 분배에 제한이 없으며,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법 규정으로 수익분배가 제한된다는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또 프랑스사회연대 회의소, 지역 회의소, 협의회 등 3개 대표기관은 프랑스 사회적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3년마다 국가전략을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조들로부터 배우는 리더의 윤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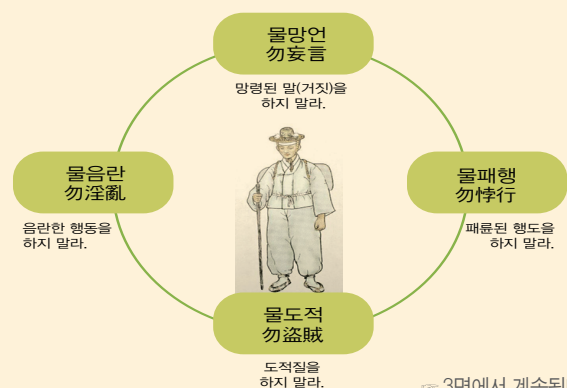
최 천 규 서경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교수/쥬코리아CS평가원 대표

우리의 선조들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살아 왔다. 이러한 윤리적 덕목을 지키는 데에는 반상(班常)의 구분이나 상하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윤리적 덕목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단군조선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부보상(負祿商)¹⁾들의 윤리강령이 그것이다. 부보상의 윤리강령을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조상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보상의 4대 강령(四大綱領)이 그것이다. 4대 강령이란 물망언(勿妄言), 물패행(勿悻行), 물도적(勿盜賊),

물음란(勿淫亂)의 4가지 강령을 말한다. 물망언이란 모름지기 상업활동을 하면서 고객에게 망령된 말, 즉 거짓이나 사실이 아닌 현혹된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 물패행이란

부보상의 4대 강령



☞ 3면에서 계속됩니다.

공정여행 플랜

“올 여름 휴가, 윤리도 챙기셨나요?”

Step 1 공정여행 이해하기

여행의 즐거움과 가치를 위해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주민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윤이 분배되고 있다면 그들 덕분에 얻은 즐거움을 결코 온전하게 즐기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이윤의 흐름을 바꾸고자 생겨난 것이 공정여행이다. 공정여행은 여행의 화려함과 편안함의 이면에 감추어진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그늘에 관심을 갖는 여행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여행이다.

Step 2 공정여행의 출발점, 여행지 선정

국내 여행은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적게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국내 관광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정여행을 떠나고자 한다면, ‘어디를’ 여행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여행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공정여행이 가능한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정여행을 가능케 하는 국내와 해외 여행지 각 1곳을 추천한다.

국내 여행지: 환경·문화자원을 보호하는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국내 여행지로 소개할 금강소나무숲길은 조선시대 때부터 왕이 보호해 왔던 금강소나무, 보부상들의 발자취가 남은 길로,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예약탐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간마다 하루 80명의 입산 제한제도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수한 산림지역과 울진십이령 보부상 옛길의 문화자원이 함께 공존하는 금강소나무숲길을 통해 문화와 역사가 복원되고, 근교 산촌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 2면에서 이어집니다.

패륜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물도적이란 장삿길을 다니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함이다. 마지막으로 물음란인데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한다. 부보상들의 4대 강령은 만약 부보상이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게 될 경우 조리돌림을 당하고 영구히 부보상단에서 제명당하는 매우 강력한 윤리강령으로 지방수령들조차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하찮게 여겼던 부보상들조차도 강력한 윤리강령을 만들어 지킬 정도로 우리 민족은 윤리의식이 매우 철두철미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도 리더가 지녀야 할 덕목의 하나로 항상 청심(淸心), 즉 청렴한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할 정도도 윤리철학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또한 조선 중기의 청렴한

해외 여행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라오스

라오스의 땅시 폭포 아래에는 곰들이 철창이 아닌 자연에 꾸며진 보금자리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아시아 곰을 구출, 보호하는 단체인 'Free The Bears'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이곳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불법 포획으로 고통 받는 말레이 곰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기념품의 수입은 모두 곰 보호기금으로 기부되고 있으며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는 NGO 단체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공정무역 가게가 있어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다.



Step 3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공정여행에서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보여행이나 자전거 이용 등 탄소 배출이 적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동을 위해 교통편을 이용해야 한다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를 이용한다면 노선을 고를 때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잣은 환승을 지양하고 직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화물운송이나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짐을 가볍게 꾸리는 것도 지속가능한 공정여행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Step 4 공정여행을 위한 여행자의 작은 노력

공정여행에서는 첫인사에서부터 작별인사를 나누기까지 어느 것 하나 뿌듯하지 않은 일이 없다. 간단한 현지의 언어를 배워 인사를 건네며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착한 소비를 고집하며 공정여행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여행객은 사소한 행동 하나가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자각하고 현지인의 인권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을 한다면 보람찬 공정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비였던 이덕무선생은 “불금세행 종루대덕(不矜細行 終累大德)”, 즉 “작은 행실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큰 덕을 허물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윤리적으로 조그마한 잘못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할 정도로 철저한 윤리의식을 강조했던 것이다.

윤리를 하나의 생활철학으로 삼았던 우리 선조들의 실천적 윤리철학을 오늘에 본받아 새로운 윤리사회를 만들어 가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²⁾의 지혜로 무장한다면 아마도 윤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1) 조선총독부가 1929년에 발간한 『조선인의 상업(朝鮮人の商業)』에 부보상을 언급하면서 보부상(保負商)이라는 명칭으로 바뀌 부르면서 잘못 사용되어 왔다. 보부상이 아니라 부보상이 정확한 명칭이다.

2) “옛것을 배우고 익혀 오늘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현대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덕목을 의미함.

윤리경영 메신저

민간·공공 부문에서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모임과 사례를 통해 윤리경영을 널리 전파하는 단체들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뭉쳐야 효율적인 "판교 CSR얼라이언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는 최근 주요 IT기업들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새로운 IT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곳에 소재한 13개 IT기업은 사회공헌 활동 연합체인 '판교 CSR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청소년 대상 연합 IT스쿨, 대학생을 위한 에너지 콘서트, 연합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다.



기업윤리 확산을 위한 "국제기업윤리포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소장 전성빈 교수)가 개최하는 '국제 기업윤리 포럼'에서는 학계 및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기업의 윤리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 모임에서는 선진기업들이 직면하는 기업윤리 딜레마 상황을 공유하고,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이 실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진다.



윤리가 경쟁력이다, "윤경SM포럼"

"윤리경영(倫理經營)이 경쟁력(競爭力)의 원천이다"라는 신념으로 2003년 2월, 산업정책연구원이 윤경SM포럼을 발족했다. 윤경SM포럼은 국내 대표적인 공공 및 민간기업, 중소·중견, 학계, 개인 등 다자간이 참여하는 민간장수포럼으로,



윤리경영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사회의 신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이고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의 사례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윤리경영학회"의 깊이 있는 윤리경영 연구

한국윤리경영학회는 윤리경영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학계와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의 윤리경영 모델을 정착·발전해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이 학회는 기업윤리 관련분야의 이론 및 실제와 관련된 학술지를 발간하며, 춘계·추계 윤리경영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구발표회 및 공개강좌 등을 통해 윤리경영의 현황과 동향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한다

사회책임경영을 촉진시키는 "서울글로벌컴팩트연구센터"

서울글로벌컴팩트연구센터는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의 연구기관으로서, 기업의 사회 책임 경영 지원 및 유엔 글로벌 컴팩트 가치의 함양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센터가 주관하는 글로벌 CSR 컨퍼런스(연 1회 개최)는 국내외 정부, 유엔, 기업, 학계, NGO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분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준법경영 등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 및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다.



▶ 결 어

이처럼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은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과 윤리경영 단체들은 이를 통해 윤리경영의 과제와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풍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서로의 지적과 충고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좁은 시야로 기업 내에서만 윤리경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윤리경영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윤리경영 모임에 참여해보길 추천한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웹진"!!

**보다 신속한, 보다 상세한 윤리경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웹진(이메일)과 브로슈어(웹진 요약본)로 발간하여 기업 관계자, 학계 등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웹진 신청방법

- ▶ did911@korea.kr 로
소속, 성명, 이메일주소를 보내주세요
- ▶ 제작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02-360-2772, 2774)주세요
- * 단체 신청 가능



이번 특집호를 맞이하여, '현장의 소리'라는 독자 참여 코너를 마련했다. 실무자가 생각하는 '윤리경영'을 알아보고 실무자의 고충 및 기업이 나아가야 할 윤리경영의 방향 등 기업의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윤리경영, 우리 모두의 참여를 위해

현대건설 감사실 정경환 대리

흔히들 윤리경영의 최고 단계는 사람들이 존경심을 가슴으로 느끼도록 하는 단계라고 한다. 진정으로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하는 그런 기업과 기업인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돈을 벌어들인 뒤 예쁜 포장지에 이미지를 싸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것이다. 기업윤리 문화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CEO는 물론 조직 구성원 모두 먼저 꿈을 실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열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에 열정과 꿈을 바치면 감동을 얻고 신뢰와 존경심을 얻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부(富)가 따라오는 순서일 것이다. 기업은 늘 윤리적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명성은 추락하기도 하고 오히려 고객의 신뢰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것 같다. 윤리경영이란 높은 수준의 경영행위 이전에 우리 모두가 자신의 직책과 직무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철학과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겸손과 배려의 덕목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을 수 없는 경계의 모호함

한국교직원공제회 미래전략실 이병민 차장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9년 10월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전사적인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특히 각 부서, 시도지부 별로 구성된 '윤리워크숍'은 현장 중심의 윤리경영 실천체로서 윤리경영을 전 사업부문에 빠르게 확산시킨 모세혈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사적인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2011년, 2012년 2년 연속 최고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측정에서는 면제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누렸다. 2013년 면제기관이 전체 748개 공공기관 중 단 2곳뿐이니 대단한 자부심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였다. 윤리경영의 고도화 이후 우리의 목표는 기업문화로서의 윤리경영 체질화였다. 누구나 "NO"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치기는 쉽지만 우리 일상을 좀더 윤리적으로 바꾸는 것은 마치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과 같다.

지난 4월, 우리회사는 제법 큰 규모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윤리경영 담당 팀에서는 축하화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쌀 기부로 대체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의외로 주변의 저항이 심했다. 인사발령에 따른 일반적인 축하 화환은 미풍양속처럼 용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자발적 화환 기부로 마무리 지었다. 비윤리적인 것을 윤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 일상을 좀더 윤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무척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8월

국내의 행사를 소개합니다!

제 15회 코스리 포럼

사회적 기업가들과 NPO종사자들이 모여 '대기업이 바라보는 사회적기업, NPO와의 파트너십'이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

- 주 최 : KOSRI(한국SR전략연구소)
- 일 시 : 2014년 8월 27일(수)
- 장 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이투데이빌딩 5층 교육센터

2014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

환경, 에너지 및 탄소절감 산업의 통합 전시회로서 신 재생에너지·폐기물·에너지절감 등 다양한 산업세미나와 기술설명회가 개최될 예정

- 주 최 :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 일 시 : 2014년 8월 27일(수)~29일(금)
- 장 소 : BEXCO 제 1전시장 1, 2층

Ethical Dilemma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화 사회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하여 기업의 윤리강령 활용방법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논의할 예정

- 주 최 : IFLA/FAIFE & Globethics
- 일 시 : 2014년 8월 14일(목)~15일(금)
- 장 소 : Geneva, Chateau de Bossey

2014 Governance, Risk, and Control Conference

거버넌스, 리스크, 컴플라이언스(GRC)의 최근 트렌드와 규제·컴플라이언스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GRC에 대한 기업들의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

- 주 최 : IIA & ISACA
- 일 시 : 2014년 8월 18일(월)~20일(수)
- 장 소 : Palm Beach, Florida

윤리경영 퀴즈

Q

공정여행은 현지 주민들에게 공정한 이윤이 분배되도록 하며 환경과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뜻 깊은 여행이다. 다음 중 공정여행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1) 지역문화 체험 활동 참여
- 2)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 3) 멸종 위기의 희귀종으로 만든 기념품 구입
- 4)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이용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2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담당자 양점남(did91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25일까지 보내주시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박상제님, 한혜조님, 윤홍구님, 김정호님, 정은주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리경영 롤링페이퍼

이번 기업윤리 브리프스 특집호를 맞이하여,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들의 윤리경영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Q&A

노희민 차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고객센터원부)

1. 당신에게 윤리경영이란?
-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혈액
2. 윤리경영 업무에 보람을 느낄 때
- 대외적인 평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판일 때
- 내 가족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공사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3. 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 경영진의 의지 및 지원(Soft-Ware)
- 직원들의 실천 노력(Human-Ware)
-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리시스템(Hard-Ware)
4. 윤리경영을 훌륭히 수행했을 것 같은 역사 속 인물과 그 이유
- 충무공 이순신: 숭선수범의 표상
- 방촌 황희: 근검절약 및 배려를 통한 청백리 공직자의 표상
- 백범 김구: 자아를 버리고 대의를 지킨 애국자

Q&A

허현 (한국석유관리원 감사실)

1. 당신에게 윤리경영이란?
- 이전 먼 미래가 아닌 가까이 있는 행복
2. 윤리경영 업무에 보람을 느낄 때
- 우리기관을 위해 일하면서 직원들의 청렴, 윤리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볼 때
3. 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 강력한 의지
- 꾸준한 노력
- 할 수 있다는 믿음
4. 윤리경영을 훌륭히 수행했을 것 같은 역사 속 인물과 그 이유
- 다산 정약용 : 묵민심서를 자오시고 삶 자체가 청렴하다고 느낌
- 목민심서를 자오시고 삶 자체가 청렴하다고 느낌

Q&A

허강화 차장 (한미글로벌 컴플라이언스)

1. 당신에게 윤리경영이란?
- 지금은 춥고 바람도 많이 불지만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을 맞아 아름답게 피어날 꽃
2. 윤리경영 업무에 보람을 느낄 때
- 윤리경영의 참 의미를 이해하는 직원과 대화할 때
- 윤리경영이 왜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축인지 이해하고 격려해 줄 때
3. 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 경영진의 의지: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더라도 깨끗한 사업만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
-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모든 임직원이 동일한 윤리기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기 때문
- 사회적 환경: 우리 회사가 잘한다고 윤리경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님.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사회가 윤리적이여야 가능
4. 윤리경영을 훌륭히 수행했을 것 같은 역사 속 인물과 그 이유
- 이순신 장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업무수행, 정치적 계산,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국가의 안위만 생각.

Q&A

안경민 (쌍용자동차 감사팀)

1. 당신에게 윤리경영이란?
- 기업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으로 구성된 모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
2. 윤리경영 업무에 보람을 느낄 때
- 윤리경영이 기업 경쟁력 제고의 첨병임을 실감할 때
3. 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지 / 조직문화로 승화된 윤리경영 의식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확산
4. 윤리경영을 훌륭히 수행했을 것 같은 역사 속 인물과 그 이유
- 정도전: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에서의 그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해 봄

Q&A

정언진 (전력거래소 재무경영팀)

1. 당신에게 윤리경영이란?
- 사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적이익, 탐욕 등의 불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으로 항해자의 나침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 윤리경영 업무에 보람을 느낄 때
- 매년 윤리에 관한 기준이 새로이 설정되어 가치판단이 쉬워질 때,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3. 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 무엇보다 개인의 가치관 / 기업의 문화 / 제도적으로 상과 벌이 명확히 시행되는 것
4. 윤리경영을 훌륭히 수행했을 것 같은 역사 속 인물과 그 이유
- 강철왕 카네기: 미국의 철강산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막강한 재산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을 자선사업을 쏟아부은 인물로서 당대의 최대의 자선사업가였다.

Q&A

김정호 차장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실 특장감사팀)

1. 당신에게 윤리경영이란?
- 윤리경영은 산소와 같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윤리경영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
2. 윤리경영 업무에 보람을 느낄 때
- 직원들과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때
3. 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 열정, 순수함 그리고 배려
4. 윤리경영을 훌륭히 수행했을 것 같은 역사 속 인물과 그 이유
- 정약용: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목민심서를 지었고, 스스로 청빈한 삶을 실천했음

Q&A

이유진 대리 (한국광해관리공단 감사실)

1. 당신에게 윤리경영이란?
- 애매한 기준을 사회적 규범보다 높게 제시하여 사람들의 행동규범 수준을 높이는 것
2. 윤리경영 업무에 보람을 느낄 때
- 직원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윤리적 행동규범을 지속적인 교육과 관철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3. 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 윤리규정, 윤리실천 전담조직, 윤리실천 공감대 확산
4. 윤리경영을 훌륭히 수행했을 것 같은 역사 속 인물과 그 이유
- 김만덕: 가난한 집안 출신에다 전직 기생이었던 여성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제주도 물품과 목지 물품을 교역하는 유통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 그 외중에 재해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기근에 시달리자 전 재산을 털어 도민들을 살려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인물로써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성공한 경영자였다.

Q&A

김범준 (롯데푸드 윤리경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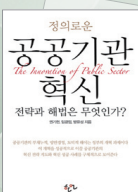
1. 당신에게 윤리경영이란?
- 기업의 사명이자 사회적 역할
2. 윤리경영 업무에 보람을 느낄 때
- 회사 구성원들이 각자의 업무에서 윤리경영에 입각해 일처리를 하고 있을 때
3. 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 CEO의지 / 지속적이고 체계적 윤리경영 교육
4. 윤리경영을 훌륭히 수행했을 것 같은 역사 속 인물과 그 이유
- 제갈량: 상벌 기준이 분명하고 공명정대
- 관우: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원칙을 고수

Q&A

정은주 선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R혁신팀)

1. 당신에게 윤리경영이란?
- 우리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반부패 청렴 활동
2. 윤리경영 업무에 보람을 느낄 때
- 정부 청렴도 평가 등에서 직원들이 청렴의식이 높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3. 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 사회적 책임 실천
4. 윤리경영을 훌륭히 수행했을 것 같은 역사 속 인물과 그 이유
-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은 평소 청렴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목민심서를 통해 후세들에게 청렴과 관련한 많은 좋은 사례와 글을 남기셨기 때문이다.

새로운책 소개



정의로움 공공기관 혁신

- 전략과 해법은 무엇인가

저 자: 권기현, 임광업, 방유성

출 판: 한언

출판일: 2014. 5. 10

정 가: 19,000원



소통자본을 구축하라

-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시각

저 자: 김효상

출 판: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4. 7. 20

정 가: 17,000원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